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K-SSAS)의 타당화 연구

박 홍 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양교육대학

이 정 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른 자기인식 흐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Govern과 Marsch(2001)가 개발한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을 한국판 척도로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SAS 원 문항에 대한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K-SSAS)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대학생 265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 원척도와 동일하게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양호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요인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새로운 표본인 대학생 31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정 수준의 적합도를 보여 K-SSAS의 3요인 모형이 지지되었다. 또한, K-SSAS가 상황적 자기인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고자 척도개발 당시 Govern과 Marsch(2001)가 실시했던 실험과 유사하게 두 차례의 준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SSAS가 실험조건에 따라 상황적 자기인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화된 K-SSAS가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의 전문적 개입을 통해 일어나는 참여자들의 자기인식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 이와 관련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상황적 자기인식,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타당화 연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정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54
E-mail: bice0213@gmail.com

우리는 상황에 따라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여 숙고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나 행동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갖곤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주의의 흐름을 자기인식(self-awareness)이라 한다. Duval과 Wicklund(1972)가 주장하는 객관적 자기인식이론에 의하면, 인식의 흐름, 즉 인식의 주의를 계속 변화하는데, 이들은 인식의 주위가 자신 내부로 집중되는 주관적 자기인식(subjective self-awareness)과 인식의 주위가 자기 외부로 집중되는 객관적 자기인식(objective self-awareness)으로 구분하였다. 내부에서 외부로의 인식 흐름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예상되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로 주의의 초점이 자신의 시선에서 타인의 시선으로 이동하는(shifting) 것을 의미한다(Clark & Wells, 1995).

자기인식 흐름은 그 방향이 내부로 향하는지 외부로 향하는지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다르다. 내부로 주위가 집중되는 자기인식은 우리가 억압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그대로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Watson, Goldman, & Greenberg, 2011), 개인 내면의 부분들을 통합하여 자기에 대한 모호함을 줄여 주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숙달감을 배양하는데 기여한다(Yalom & Leszcz, 2005). 이에 반해, 외부로 주위가 집중되는 자기인식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서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사회불안(social anxiety)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불안에 의해 대인관계나 여러 타인들 앞에서 적절하고 기능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을 함의한 자기인식의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뚜렷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많지 않았다(Richards, Campenni, & Muse-Burke, 2010).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되어 있는 만큼 자의식(self-consciousness), 자기초점주의(self-focused attention), 반추(rumination), 자기성찰(self-reflection) 등과 같은 유사용어들이 다양하게 혼용되어 왔다(정승아, 2012). 특히, 자의식의 경우 자기인식과 가장 많은 혼동이 된 개념이었고(Antony, 2001), 실제 많은 연구에서 자기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Fenigstein과 동료들(1975)이 개발한 자의식척도 중 하위척도인 사적 자의식척도를 사용해왔다(이지영, 권석만, 2005).

하지만 자의식과 자기인식은 미묘한 개념적 차이를 보인다. 자의식은 주위가 자기의 내적 사고와 감정 및 행동 등에 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개인차 변인인 반면(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자기인식은 인지적 차원에서 주의와 사고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보다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상태적인 성향으로 정의된다(Silvia, Eichstaedt, & Phillips, 2005). 즉, 자의식은 하나의 전반적인 특질(trait)적 속성을 지닌다면, 자기인식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의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상태(state)적 속성임을 지닌다고 하겠다(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그러므로 자의식과 자기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특질적 속성으로 구분되는 자의식부터 살펴보면, Fenigstein과 동료들(1975)에 따르면 자의식은 생리적 변화나 정서 및 사고 등 개인의 내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사적 자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타인에게 비쳐지는 개인의 행동이나 외모

등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공적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그리고 공적 자의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로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 신경 쓰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불안(social anxiety)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자의식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평가, 행동 원인에 있어서의 왜곡된 사고, 낮은 자존감 등과 같이 주로 부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그로 인해 우울이나, 사회불안, 편집증과 같은 개인의 부정적인 결과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정승아, 오경자, 2004; Ingram, 1990). 이렇듯 자의식이 부정적인 속성과 관련이 깊은 이유 중 하나는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의 부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사적 자의식의 이중적인 면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은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는 행동이나 신체적 외모, 혹은 노출되는 정서표현 등에 주의를 집중되는 것으로(Fenigstein et al., 1975), 개인 내적인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즉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적 자의식 및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이 좀 더 긍정적인 인상으로 평가되고 싶은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보다 사회적으로 적응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과도한 억압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보았다(Fenigstein et al., 1975). 실제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공적 자의식과 사회불안이 높은 이들이 타인의 거절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Fenigstein, 1979),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다 두려워했으며(기인숙,

2009), 미래에 대해 더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거나(전영주, 박기환, 2011), 비합리적인 신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재원, 2002).

하지만 자의식이 꼭 역기능적인 속성만을 지녔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 자의식 하위개념 중 사적 자의식의 경우 역기능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자기몰두인 반추(rumination) 개념과 더불어 기능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자기성찰인 숙고(reflection) 개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Trapnell & Campbell, 1999). 이렇듯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자의식 개념의 이중성을 밝히려는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미령, 2014;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 1999; 조아라, 김영미, 2000; Silvia & Phillips, 2011; Trapnell & Campbell, 1999).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합의된 내용 중 하나는 자의식이 개인내적인 면의 알아차림과 자기성장을 위한 인지적 과정인 자기성찰(self-reflection),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추와 같은 자기집착(self-preoccupation)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속성인 ‘자기성찰’에 초점을 둔 연구들에서는 사적 자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의 신체적 과정, 기분, 동기, 목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Buss, 1980),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Davies, 1994),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자기지식이나 일관적인 태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들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지영, 권석만, 2005).

다음으로 특질적인 자의식과 구분하여 상태적인 속성의 자기인식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Govern과 Marsch (2001)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인식의

흐름이 내부 혹은 외부로 이동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상태적 개념으로서의 자기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상황적 자기인식척도(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SSAS)를 제안하였다. 자기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주의의 흐름이 내부로 향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적(private) 자기인식,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주의의 흐름이 타인으로 향하여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하는 공적(public) 자기인식, 그리고 주의의 흐름이 폭넓게 외부 환경으로 향하여 이에 대해 잘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하는 환경적(surrounding) 자기인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Govern & Marsch, 2001).

자기인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식이 사적 혹은 환경적으로 흐르는 경우와 공적으로 흐르는 경우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의 주의가 개인의 내면으로 집중되어 있는 사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순간마다 개인의 의견이나 태도를 잘 인식하기 때문에 태도나 행동에 있어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Scheier, 1980), 마음챙김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au, Bishop, Segal, Buis, Anderson, Carlson, & Devins, 2006), 자기개방에 있어 보다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Franzoi & Davis, 1985). 반면, 자신의 겉모습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타인에게 부여되는 인상이나 평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적 자기인식이 높은 경우,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인식하는데 있어 불안이나 긴장 등을 느끼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enigstein, 1979),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적 태도에 민감하며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자기표현방법을 조절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eier, 1980).

일반적으로, 자기인식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자각과 통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통찰을 중요시 하는 많은 상담 및 심리치료 접근들은 자기의 사고와 감정 및 행동을 관찰하고 살피는 능력으로서의 자기인식을 심리치료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 온 것이 사실이다(Trapnell & Campbell, 1999). 또한 개인 내적인 면을 관조하며 자기인식을 증진시켜 나가는 작업은 교육현장에서 인격수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왔다(김용수, 2010). 특히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현장에서 자기인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 Gecas(1982)의 자기인식 이론에 의하면, 실제 자기평가가 이상화된 자기평가보다 낮기 때문에 개인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향상하려는 동기 부여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인의 동기는 이상화된 자기 개념과 자신의 원래 이미지 사이의 부조화에 대한 자기인식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기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지 자기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인식의 흐름의 방향이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개인의 심리·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역시 교육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기인식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술한 바 있듯이 그동안 자기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의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 개념이 혼용된 자의식척도를 차용하

여 연구해왔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자기인식을 변인으로 한 연구들이 그 필요성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의식 개념과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자기인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Govern과 Marsch(2001)가 개발한 상황적 자기인식척도(SSAS)를 한국어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개입에서 자기인식의 변화 정도를 평가하거나 그 기제를 밝히 고자 하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A, B 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목적 및 연구윤리에 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설문조사의 전체 응답자 612명 중 결측치가 발생하거나 성의 없이 응답한 자료를 제거하고 최종 57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265명의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위한 표본 1로,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311명의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위한 표본 2로 분류하였다. 표본 1의 평균 연령은 만 21.88(SD = 2.07)로서 남자는 97명(36.74%)이었고, 여자는 167명(63.26%)이었고, 표본 2의 평균연령은 22.05세(SD = 1.89)로서, 남자는 137명(44.05%)이었고, 여자는 174명(55.95%)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K-SSAS)의 예비척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인식 영역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Govern과 Marsch(2001)가 개발한 SSAS를 한국어로 번역 및 역번역하여 구성된 예비척도를 사용하였다. SSAS는 사적(Private) 자기인식 3개 문항, 공적(Public) 자기인식 3개 문항, 환경적(Surrounding) 자기인식 3개 문항 등 총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영역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순간 자기에 대한 인식이 그 영역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Govern과 Marsch(2001)의 연구에서는 공적 자기인식, 사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의 내적일치도가 각각 .82, .70, .72로 나타났다.

한국판 상태자존감척도(Korean State Self-Esteem Scale)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Heatherton과 Polivy(1991)가 개발한 SSES를 박홍석과 이정미(2015)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K-S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자기존중을 의미하는 일반자존감,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존중을 의미하는 수행자존감,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존중을 의미하는 사회자존감 등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순간의 자존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박홍석과 이정미(2015) 연구에서 일반자존감, 수행자존감, 사회자존감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86, .83,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3, .85, .72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본 연구에서는 Sherer와 Maddux(198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기효능감척도를 홍혜영(1995)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요인분석하여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영역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Cronbach's는 각각 .86, .6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 .78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영어,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미국임상심리학 박사인 교수 1인의 협조를 얻어 영어로 된 원척도의 한국어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예비척도 초안을 제작하였고,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사용자 3인을 대상으로 원척도의 문항과 내용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상담심리학 교수 2인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예비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문항을 이해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예비조사 설문지의 문항들을 모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장에 있어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예비문항으로 본 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자기인식척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인식의 변동에 대해 하위요인의 구별이 가능한 정도의 민감한 측정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원척도 개발 시 실시했던 실험과 유사한 두 차례 모사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먼저 상황적 자기인식척도의 하위요인 구성을 탐색하고 구성개념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1의 자료를 바탕으로 EFA 및 문항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FA는 SPSS프로그램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요인추출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사용하였으며, 회전은 사각회전 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 방식으로 분석하였다(이순목, 2000).

이어, 표본 1에서 추출된 상황적 자기인식척도의 요인구조가 새로운 독립된 표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2의 자료를 토대로 CFA를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치와 변량분석을 위해 역시 SPSS프로그램 22.0을 사용하였고, CFA를 위해 AMOS프로그램 22.0을 이용하였으며, 모수 추정방식에서도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척도 하위요인 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K-SSAS 예비척도의 기술 통계치

척도검증에 앞서 K-SSAS 예비문항들의 기술 통계치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과 같이 ±3.00 이상의 왜도나 ±7.00 이상의 첨도를 나타낸 문항이 없었으므로 9개 문항이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SSAS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해 보기 위해 표본 1(N=265)을 대상으로 EFA를 실시하였다. EFA를 실시하기 전 K-SSAS 예비척도의 총점-문항 간 상관 및 문항제거 시 내적일

치도를 확인하였다. 3번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 이하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총점의 점수가 큰 의미가 없는 척도의 특성을 고려하고 문항 제거 시 내적일치도가 .01 증가하는데 그쳤으므로, 9개 문항을 모두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KMO값이 .74로 기준치인 .60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유의도 검증도 유의한 수준($\chi^2 = 942.13, p < .001$)을 보여, 요인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변인들 간의 상관을 보여주는 자료임이 입증되었다.

이어,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EFA 및 문항 간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5번 반복으로 회전이 수렴되어 요인이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1. K-SSAS 예비척도의 기술 통계치 (N = 265)

	문 항	M	SD	왜도	첨도
1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위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	3.99	1.04	.35	.06
2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안의 감정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있다.	4.84	1.09	-.23	-.18
3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3.98	1.38	-.27	-.45
4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지에 대해 의식한다.	4.30	1.30	-.49	.18
5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55	1.02	-.11	.10
6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03	1.19	-.33	-.03
7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염려한다.	4.20	1.38	-.30	-.49
8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	4.96	1.17	.07	.13
9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변의 모든 대상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4.73	1.04	.05	-.15

표 2.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265)

문항	공적	사적	환경적
4.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지에 대해 의식한다.	.95		
7. 지금 이 순간, 나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염려한다.	.79		
3.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73		
8.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마음 속에 품은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		.94	.47
2.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안의 감정에 대해 잘 알아차리고 있다.		.69	.47
6.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34	
5.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45	.85
1.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위환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		.62	.73
9.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주변의 모든 대상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33	.68
고유치	3.06	2.35	1.08
설명변량	23.26%	28.01%	8.51%
누적설명변량	23.26%	51.27%	59.78%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면, 세 번째 요인이 지나면서 요인 간 고유치 차이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다음으로, 고유치(eigen value)가 1.0을 넘는 요인의 수가 총 3개로 그 값이 각각 3.06, 2.35, 1.08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원칙도인 SSAS 역시 3요인 구조였던 점 등 요인의 해석가능성까지 고려했을 때 하위요인 수를 세 개로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하여 다시 한 번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번 반복에 의해 회전이 수렴되었으며, 각 요인부하량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세 하위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9.78%로 나타났고, 각 하위요인별 누적 설명변량은 각각 23.26%, 28.01%, 8.51%로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하위요인에 .10 이하의

차이가 나는 교차부하량(cross loading)을 보이는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30이하의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역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척도를 제안하였다. 모든 문항이 원칙도와 동일한 요인에 각각 묶였으므로 하위요인의 이름을 각각 공적 자기인식, 사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사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은 .49($p < .001$)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낸 반면, 공적 자기인식은 다른 두 하위요인인 사적 자기인식 및 환경적 자기인식과 각각 .07($p > .05$)과 -.05($p > .05$)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문항 간 상관행렬표는 표 3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3.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의 문항 간 상관행렬표 (N = 265)

	1	2	3	4	5	6	7	8	9
1	1								
2	.31***	1							
3	-.18***	-.12	1						
4	-.05	.01	.68***	1					
5	.57***	.41***	-.09	.08	1				
6	.09	.30***	.06	.07	.18***	1			
7	-.06	.01	.57***	.75***	.03	.10	1		
8	.30***	.65***	-.15*	-.25***	.39***	.31***	-.00	1	
9	.48***	.45***	-.19***	.05	.62***	.18***	.03	.56***	1

* $p < .05$, *** $p < .001$

K-SSAS의 신뢰도 검증

K-SSAS의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9개 문항 전체의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공적, 사적, 환경적 자기인식은 각각 .86, .73, .79로 나타났다.

K-SSAS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FA에 의해 제안된 K-SSAS의 3요인구조의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보고자 표본 2 (N=311)를 가지고 CFA를 실시하였고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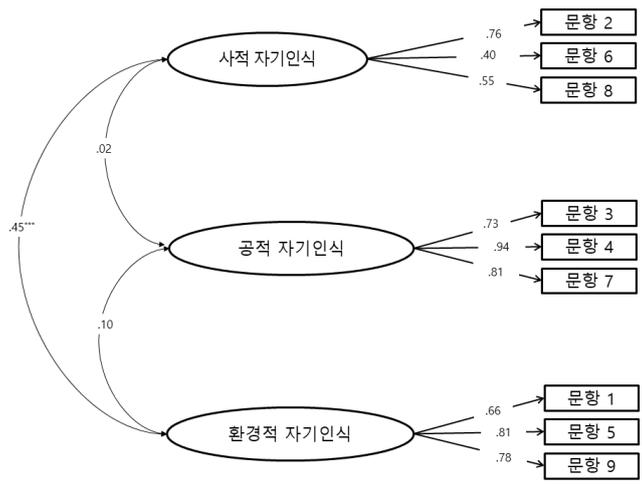


그림 1. K-SSAS의 3요인 측정모형

표 4. K-SSAS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11)

Model	모수	df	χ^2	χ^2/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3요인 모형	30	24	48.86	2.04***	.95	.97	.06(.03~.08)

*** $p < .001$

을 반영할 수 있는 RMSEA와 TLI, CFI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모형 적합도를 살펴 보았고(홍세희, 2001),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 하였다.

K-SSAS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지수는 χ^2 ($df=24$) = 48.86, TLI = .95, CFI = .97, RMSEA = .06이었다. TLI와 CFI가 양호한 적합도판단기준인 .90이상으로 나타났고, RMSEA 역시 양호한 판단기준인 .08이하로 나타났으므로, K-SSAS의 3요인 구조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SAS의 수렴타당도 검증

자기인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K-SSAS의 수렴타당도

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K-SSAS의 사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 요인은 상태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총점과 .35~.38에 이르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공적 자기인식은 상태자존감 및 자기효능감 총점과 각각 -.51과 -.35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하위요인별 상관을 먼저 살펴보면, K-SSAS의 사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의 경우 상태자존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자존감과 각각 .38과 .39의 중등도의 상관을 나타냈으나, 공적 자기인식은 -.21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수행자존감과는 K-SSAS의 세 하위요인인 모두 절대값 기준 .26~.38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사회자존감과는 사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이 각각 .18과 .15

표 5. K-SSAS의 하위요인들과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

(N = 265)

구 분	평균(표준편차)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
상태자존감척도	3.37(.51)	.38***	-.51***	.35***
일반자존감	2.74(.64)	.38***	-.21***	.39***
수행자존감	4.16(.61)	.30***	-.38***	.26***
사회자존감	3.13(.81)	.18**	-.66***	.15*
자기효능감척도	3.43(.54)	.38***	-.35***	.35***
일반적 효능감	3.44(.59)	.37***	-.24***	.30***
사회적 효능감	3.43(.74)	.23***	-.32***	.32***

* $p < .05$ ** $p < .01$ *** $p < .001$

의 매우 낮은 상관을 나타낸 반면, 공적 자기 인식은 -.66의 높은 상관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척도와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환경적 자기인식의 경우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과 각각 .30과 .32의 중등도 상관을 고르게 나타내었으나, 사적 자기인식의 경우 일반적 효능감과 .37의 중등도 상관을, 사회적 효능감과는 .23의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공적 자기인식은 사적 자기인식과 반대로 일반적 효능감과는 -.24의 낮은 상관을 사회적 효능감과는 -.32의 중등도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K-SSAS의 수렴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K-SSAS 하위요인의 변별타당도 검증

다음으로는 K-SSAS가 상황에 따라 자기인식의 흐름이 내부 혹은 외부로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해내는지 알아보고자 두 차례의 준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원칙도인 SSAS의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들과 최대한 유사한 방법으로 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인식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자기인식의 상황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소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자기인식증진을 위한 단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목적과 연구윤리에 관한 안내를 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구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에 한해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여한 대학생 95명 중 응답에 결측값이 있는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1.88세(SD = 1.09)였고, 남학생이 36명(39.13%), 여학생이 56명(60.87%)이었다.

첫 번째 실험에서 K-SSAS의 상황적 변화에 대한 측정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인 자기인식 증진프로그램(부제: 나와 의 만남, 4시간)을 실시하였다. 집단은 프로그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회 30~35명의 규모로 3회에 걸쳐 총 9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3회 모두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K-SSAS의 하위요인, 즉 공적, 사적, 환경적 자기인식에 대한 메타인지적 접근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접해보고,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내면적 자기와의 만남을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는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는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지·정서·행동이론(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에 입각하여, 참여자의 자기인식 변화를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의 전반부 도입 국면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K-SSAS를 통해 사전측정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동일한 설문을 통해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t*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자기인식증진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사적 자기인식은 유의한 증가($t = 2.27, p < .05$)를 보였으나, 환경적 자기인식($t = 1.27, p > .05$)과 공적 자기인식($t = -1.65, p > .05$)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자기인식 증진프로그램(나와의 만남) 구성

제 목	주 제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내 주변에서 만나는 나	환경적 자기인식	사전검사 • 프로그램 소개 및 팀 구성 • 주변 사물이나 상황으로 자기표현 해보기 • 소그룹 활동 : ‘지금의 나’를 소개합니다.
		휴 식 시 간
내 안의 또 다른 나	사적 자기인식	• 자기인식 이론 강의 • 자기인식 및 자기개념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 • 자기인식을 통한 자기개념 형성 • 소그룹 활동 : ‘내 안의 나’를 보여줍니다.
		휴 식 시 간
너를 통해 만나는 나	공적 자기인식	• 다른 이와 의 관계를 통한 자기인식 • 소그룹 활동 : ‘내가 보는 너’, ‘남이 보는 나’ • 마무리 및 소감 나누기
		사후 검사

표 7 K-SSAS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N=95)

구분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공적 자기인식	4.54	1.17	4.42	1.10	-1.65
사적 자기인식	4.95	.88	5.13	.87	2.27*
환경적 자기인식	4.25	.94	4.51	.80	1.27

* $p < .05$

이어, K-SSAS가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영역 별 인식의 차이를 측정하는 상태척도로서의 민감성을 확인하고자 원칙도 개발자인 Govern 과 Marsch(2001)가 실시했던 실험을 모사한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거울, 비디오촬영, 참관 등 세 조건에서 강의를 실시하고 수업 전, 후 각 영역에서의 자기인식 변동을 측정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서울시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 목적 및 윤리에 대해 안내 및 진행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강에 참여를 희망하는 183명의 대학생 중 응답

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36세(SD = 1.37)였고, 남학생이 65명(36.52%), 여학생이 113명(63.48%)이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 K-SSAS의 상황적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거울, 비디오촬영, 참관수업 등의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 강의실에서 각각 1시간 특강을 진행하고, 특강 전과 후에 K-SSAS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을 진행하기 전 참여자에게 각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세 가지 조건의 강의실에서 ‘성공한 선배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1시간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은 졸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선배를 섭외하여 10분 정도 자기소개를 한 후, 50분 동안 참여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배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선배가 짧게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조건인 거울은 측면에 전신거울이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하였다. 측면에만 거울이 있어 거울에 비치지 못하는 자리의 참가자를 고려하여 특강 중반에 자리를 바꾸어가며 진행하였다. 두 번째 조건인 비디오 촬영은 전면과 후면에 각각 2대씩 총 4대의 고정식 비디오와 1명의 비디오 기사에 의해 특강이 녹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여자들에게 주지시킨 후 특강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한 명씩 자리에 일어나서 질문을 할 때, 1명의 비디오 촬영기가 다가가 촬영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조건인 참관수업은 석·박사 과정생들이 강의실 전면과 후면에서 참관하여 특강 진행을 지켜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전면과 후면에 각각 8명씩 배치하였으며, 질의응답에 참여하지 않고 참관만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 K-SSAS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K-SSAS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강이

표 8. 실험 조건에 따른 상황적 자기인식의 측정시기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차이 검증

조건	요인	df	사전		사후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거울	공적 자기인식	51	4.48	1.04	4.58	.94	.84
	사적 자기인식		4.94	1.03	4.92	.77	-.16
	환경적 자기인식		4.15	.82	4.36	.94	1.73
비디오 촬영	공적 자기인식	60	3.93	1.23	4.63	1.18	5.05***
	사적 자기인식		4.87	.97	4.88	.93	.14
	환경적 자기인식		4.05	.90	4.46	.80	4.65***
참관 수업	공적 자기인식	64	4.00	1.21	4.32	1.28	2.42*
	사적 자기인식		4.95	.89	5.01	.94	.62
	환경적 자기인식		4.21	.82	4.62	.89	4.29***

* $p < .05$, *** $p < .001$

모두 끝난 후 동일한 설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사후 *t*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 조건 별로 살펴보면, 겨울조건에서는 참여자들의 사적 자기인식($t = .84, p > .05$), 공적 자기인식($t = -.16, p > .05$), 환경적 자기인식($t = 1.73, p > .05$)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비디오촬영 조건에서는 공적 자기인식($t = 5.05, p < .001$)과 환경적 자기인식($t = 4.65,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적 자기인식($t = .14, 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참관수업 조건에서 역시 공적 자기인식($t = 2.42, p < .05$)과 환경적 자기인식($t = 4.29,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적 자기인식($t = .62, p > .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척도(K-SSA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요인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EFA 결과, K-SSAS는 원척도인 SSAS(Govern & Marsch, 2001)와 동일하게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문항구성 역시 동일하였다. 이에 원척도와 동일하게 각 하위요인에 대해 사적 자기인식, 공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으로 명명하였다. 다만, 6번 문항(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의 요인부하량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적었는데, 이는 원척도인 미국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랑스판인 F-SSAS(Auzoult, (2013)와 중국어판인 C-SSAS(Liu,

Shao, Yang, Wu, Yang, Wang, & Xiao, 2009)가 모두 사적자기인식과 공적자기인식에서 교차부하량을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특히, 같은 아시아국가인 중국의 경우 교차부하량이 꽤 높은 것으로 보아 원척도인 영어판과 타 국가에서 타당화한 척도 간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가 유독 6번에서 민감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로 타당화한 K-SSAS의 경우 6번 문항이 문맥상 개인의 내면에 대한 인식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사적 자기인식으로 분류되기는 했지만, 이 문항은 상태적인 문항이라기보다는 평소 자기의 삶에 대해 숙고하는 정도를 묻는 특질적 문항에 가깝기 때문에 요인부하량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각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사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은 중등도 정도의 상관을 보인 반면, 공적 자기인식은 사적 자기인식 및 환경적 자기인식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척도인 SSAS를 개발한 Govern과 Marsch(2001)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인식은 환경적 자기인식과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사적 자기인식과도 약한 상관을 나타냈던 점을 고려할 때, 상황적 자기인식척도는 지금 현재 자기인식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척도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K-SSAS의 총점이 의미하는 바가 곧 자기인식의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고 풀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보더라도 상황적 자기인식척도(SSAS)가 특정 상황에서 자기인식이 자신을 향하는지, 타인을 향하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향하는지 알아보고자한 연구들(Brown, & Stopa, 2007; Cai, Huang, Wu, & Kou, 2015; Hodgins, 2015)에서 주로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척도

의 총점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서 밝혀진 다양한 자기개념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K-SSAS가 사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인식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수렴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은 사적 자기인식, 환경적 자기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자기인식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K-SSAS가 측정하는 상황적 자기인식 구성개념이 개념적으로 수렴됨을 입증하였다. 이는 자존감이 현재의 자기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목표 및 동기와의 불일치 정도이며, 이러한 불일치 정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같은 자기인식기술에 의해 비교되고 결정된다는 Heatherton과 Wyland(2003)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평가에 있어 다른 이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능력에 대한 평가인 사회적 효능감과 공적 자기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공적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사회불안이 높다는 Fenigstein(1979)의 견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K-SSAS가 자기인식의 하위요인 중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의 공적 자기인식을 잘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K-SSAS가 상황에 따라 각 하위요인의 변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자 사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인식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하였

다. 이를 위해 Govern과 Marsch(2001)가 SSAS 개발 당시 했던 실험과 유사한 준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조건에서 참여자들의 자기인식을 사전·사후에 측정하여 처치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K-SSAS가 상황적 자기인식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는 자기인식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전 사후에 K-SSAS를 통한 측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기인식 증진 프로그램 후에 사적 자기인식만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공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에서 실시했던 자기인식 증진프로그램의 주된 내용과 활동이 사적 자기인식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하여, 좀 더 다양한 자기인식 영역의 변화를 유도하여 K-SSAS의 측정 민감성을 평가하고자 Govern과 Marsch(2001)의 연구를 응용한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하였다. 1시간 동안 전신거울 조건, 비디오촬영 조건, 참관 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각 집단의 상황적 자기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적 자기인식은 세 조건 모두에서 노출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 번째 실험의 결과와 더불어, 과거 경험의 회상을 하게 한 후 SSAS를 측정한 결과 사적 자기인식이 다른 하위요인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던 Govern과 Marsch(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이는 K-SSAS가 사적 영역의 자기인식을 명확히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자기인식과 환경적 자기인식은 비디오촬영 및 참관 조건에서 노출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울조건에서는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공적 자기인식은 거울 및 참관 조건에 비해 비디오촬영 조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적 자기인식이 거울 조건에 비해 비디오 촬영 조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Govern과 Marsch(200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K-SSAS가 상황적으로 변화하는 자기인식의 상대적 변화를 측정하는데 있어 유용한 척도임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각 하위요인의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끝으로, K-SSAS의 3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FA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3요인 구조의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vern과 Marsch(2001)가 SSAS를 개발한 연구에서는 CFA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연구에서도 CFA 없이 사용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CFA를 통해 K-SSAS의 3요인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른 자기인식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한국판 상황적 자기인식 척도(K-SSAS)를 제안하고, 경험적 자료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심리측정적으로 강건한 척도임을 입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실험을 통해 척도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황적 자기인식척도를 통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기인식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기인식이 개인의 성격특성과 기술적 측면 모두를 개념화할 수 있다는 Church(1997)의 주장과 같이 학교나 상담현장에서 사

적 자기인식과 공적 자기인식의 적절한 균형을 돕는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성장과 자기성찰을 촉진하고, 나아가 인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황에 따라 자기인식의 흐름에 있어서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제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몇 가지 자기인식 흐름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그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척도의 타당화에 집중하느라,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심도 있는 연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장면에서 상황적 자기인식의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모두 대학생이었기에 한국 성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식의 흐름이 상황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 남녀 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성차의 고려는 향후 상황적 자기인식척도의 사용에 있어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상황에서 자기인식 흐름의 변화에 있어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기인숙 (2009). 청소년의 완벽주의성향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외모에 대한 관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김미령 (2014). 청소년기 사적 자의식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체성 혼미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1(3), 141-169.

김영아, 오경자, 문혜신, 김진관 (1999). 사적 자의식 구인의 두 가지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69-78.

김용수 (2010). 알아차림 프로그램이 주부 자원봉사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1(3), 1351-1373.

박홍석, 이정미 (2015). 한국판상태자존감척도(K-SSE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1), 133-158.

양재원 (2002). 사회불안 집단의 부정적 얼굴표정에 대한 선택적 주의편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 학사.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이지영, 권석만 (2005). 자기초점적 주의 성향척도의 개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451-464.

전영주, 박기환 (2011).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불안의 관계: 긍정적인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1(2), 59-73.

정승아, 오경자 (2004). 부적응적 자기초점화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2), 471-481.

정승아 (2012). 사회불안과 자의식, 그 진단적 및 치료적 시사점. 상담학연구, 13(1), 47-69.

조아라, 김영미 (2000). 자의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2), 319-330.

홍세희 (2001).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심리현상의 분석: 집단변화 및 심리특성에 관한 다변인 자료 분석방법.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연구방법론 워크샵 교재.

홍혜영 (1995). 완벽주의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ony, M. V. (2001). Is “consciousness” ambiguous?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8(2), 19-44.

Auzoult, L. (2013). A French version of the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Revue Européenne de Psychologie Appliquée/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63(1), 41-47.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Brown, M. A. & Stopa, L. (2007). The spotlight effect and the illusion of transparency in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6), 804-819.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NY: Freeman.

Cai, W., Huang, X., Wu, S., & Kou, Y. (2015). Dishonest behavior is not affected by an image of watching eye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6(2), 110-116.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M. Liebowitz & R.

- G. Heimberg(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pp. 69-93). NY: Guilford Press.
- Davies, M. F. (1994).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perceived accuracy of true and false personality feedba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697-701.
- Duval, S. & Wicklund, R. A. (1973). Effects of objective self-awareness on attribution of caus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1), 17-31.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 Franzoi, S. L., Davis, M. H., & Markwiese, B. (1990). A motivational explanation for the existence of private self-consciousness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58*(4), 641-659.
- Govern, J. M. & Marsch, L. A.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0*(3), 366-378.
- Heatherton, T. F. & Polivy, J. (199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state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95-910.
- Heatherton, T. F. & Wyland, C. L.(2003). Assessing self-esteem. In: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19-233.
- Hodgin, K. L. (2015). *Mirror, mirror by the stairs: the impact of self-awareness on stair versus elevator use i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Colorado State University.
- Ingram, R. E. (1990). Self-focused attention in clinical disorders: review and a conceptu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2), 156.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김수진, 전수현 역). 서울: 학지사.
- Lau, M. A., Bishop, S. R., Segal, Z. V., Buis, T., Anderson, N. D., Carlson, L., & Devins, G. (2006). The Toronto mindful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2), 1445-1467.
- Liu, X. F., Shao, Y. C., Yang, Y. B., Wu, S. J., Yang, H., Wang, W., & Xiao, W. (2009).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revised Chinese version of the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6), 743-752.
- Richards, K. C., Campenni, C. E., & Muse-Burke, J. L. (2010). Self-care and well-being in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awareness and mindfu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2*(3), 247-264.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3), 514-52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ilvia, P. J., Eichstaedt, J., & Phillips, A. G. (2005). Are rumination and reflection types of self-focused atten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871-881.
- Silvia, P. J., & Phillips, A. G. (2011). Evaluating self reflection and insight as self conscious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34-237.
- Trapnell, P. D. & Campbell, J. D. (1999). Private self-consciousnes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Distinguishing rumination from 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284-304.
- Watson, J. C., Goldman, R. N., & Greenberg, L. S. (2011). Humanistic and experiential theories of psychotherapy. In J. C. Norcross, G. R. Vanden Bos & D. K. Freedheim (Eds.), *History of psychotherapy: Continuity and change 2nd Ed.*, (pp.141-172)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alom, I. D. & Leszcz, M. C.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Y: Basic Books.
- 원 고 접 수 일 : 2018. 06. 16.
수정 원고접수일 : 2018. 08. 17.
최종 게재 결정일 : 2018. 08. 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Hongseok Park

Sungshin Women's Univ.

Jeong Mi Lee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ling Psycholog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validate The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SSAS) developed by Govern & Marsch (2001) which measure spontaneously occurring fluctuations in self-awareness. The preliminary scale was administered to 265 college students (Sample 1) and 9 items with 3 factors were extracted as follows; private self-awareness, public self-awareness, and environmental self-awareness. K-SSAS was verified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item-total score correlation coefficient of K-SASS were satisfactory. K-SSA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correlation with similar measures and was confirmed that it had an appropriate level of construct validity. In order to verify the structural fi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310 college students (Sample 2) and a three-factor model of K-SSAS was supported. In addition, 2 quasi-experimental studies was conducted in order to verify the specificity of the scale to measure the state-like constru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K-SSAS can be used for measuring changes in situational self-awareness in counseling, psychotherapy, and educational intervention.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Awareness, Korean version of Situational Self-Awareness Scale, Validation*